

생명농업으로의 회귀

생태적 농업관의 회복을 위해

이 병 철(녹색연합 공동대표, 전국귀농운동본부장)

1. 왜 생명농업인가?

우리가 왜 생명농업인가하고 묻는 것은 왜 생명인가라는 물음과 같다. 농업이란 곧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일이며 이로써 자신과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업이란 본래 그 과정이 그러하고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위기는 단순히 농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농업이 갖는 그 본래적 의미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왜 생명의 농업인가하고 묻는 것은 사람에게 왜 사람답게 살아야하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뜻 보기에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 같은 질문을 새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의 농업과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의 한계와 삶의 위기

환경생태계와 식량의 위기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단순한 위기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유한한 자원을 소모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연생태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문명양식이 이런 형태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위기상황은 심화되고 있다.

“제초제가 풀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의 능력 이상으로 그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성장이다. 그런데 산업사회 역시 이 같은 죽음에 이르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풀 호른의 지적처럼 인류의 문명은 이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 결과로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환경호르몬, 생명종(種)의 대규모 멸종 등 환경생태계의 재앙은 이제 인간 자신을 포함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 위기가 인류의 목숨 줄인 식량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량 위기는 환경생태위기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경지감소, 인구의 폭발적 증가, 물 자원의 고갈,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급증은 반(反)자연적인 산업문명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필연적으로 식량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생태계 위기, 식량위기 등 인류의 생존 위기에 대한 대안은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성의 실현, 곧 생태적 문명과 삶의 양식을 실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을 별개로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문명의 진보이며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사고방식과 그에 따

른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생태적 문명과 삶의 핵심은 자연과 조화되면서 지속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지속 가능성의 실현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생산과 생활양식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생태적 문명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농적(農的)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수용범위 안에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하면서 생태순환 시스템의 회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형태가 농업적 생산양식과 생활양식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대안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되는 생태적 문명과 삶이란 농적인 문명과 삶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농업생산방식과 그 가치관이 과연 상생순환의 농적인 삶과 문명을 위한 생태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의 농업은 오히려 환경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요인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농적문명이 산업문명의 위기에 대한 생태적 대안이기는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적 생산양식이 바로 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태적 대안으로써의 농적문명이란 인간과 자연이 공생조화하는 유기 순환적인 생산양식과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산업문명 체제에 편입되어 공업화된 농업생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지금의 관행화된 농업형태는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에 근거한 문명이 생태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가해자로서의 공업적 농업관의 폐해와 한계를 직시하고 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며 자연과 조화되는 유기 순환적인 농업 본래의 모습과 그 가치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 공업적 농업관의 폐해와 한계

현대 산업문명의 위기와 현대 농업 생산양식의 위기는 그 드러난 모습과 내용에서 동일하다. 그것은 생산력 중심의 공업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의 생태순환 시스템의 파괴 위에 성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약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단작화(單作化), 집약화,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현대 농업은 그것이 곧 반(反)생태적 산업문명의 농업적 표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문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현대농업 곧 공업적 농업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업적 농업생산양식은 자연의 일부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해 오던 농업 본래의 형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생명의 근원이자 그 모태(母胎)인 땅과 자연을 대량 생산을 위한 한갓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시켜 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철저히 고갈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의 생태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 농업이 자랑하는 높은 생산력과 효율성의 실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비효율의 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고 대상화하며 대량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지배, 착취하는 현대 농업생산양식은 그 이면에 인간의 무한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이원론적, 기계론적, 지배론적 세계관이 뿌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적 농업관에 의해 생명의 근원인 땅은 생산을 위한 대상으로, 농업은 상품생산의 방편으로, 농민은 땅과 자연을 약탈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수탈자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땅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으며 농촌·농업 생태계는 파괴되어 농업 자체의

지속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농업의 집약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의 과잉투입 등 화학물질에 의존한 농사법, 무분별한 경작권 확대, 집약적 축산확대 등으로 인한 공업적 생산양식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과 공업적 세계관의 차이

현대 관행농업 이른바 공업적 농업관이 갖는 이러한 한계와 폐해는 농업과 공업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에 바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농업은 인간이 자연인 땅과 관계하여 생명을 기르고 가꾸면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와 원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래서 농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바탕으로 생명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산업이다. 시멘트, 아스팔트나 오염된 땅에선 생명이 움터 자랄 수 없듯이 우선 땅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살아있는 땅에 생명의 씨앗을 묻고 싹 틔우며 돌보고 가꾸는 생명의 양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생명들을 다시 인간과 다른 생명의 양식으로 전환시켜내는 농업의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전부 생명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게 농업의 본질이다.

이에 반하여 공업적 생산양식이란 살아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는 가공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 한순간 쓰여지다가 쓰레기로 폐기되는 것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철저히 파괴와 오염과 낭비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적 생산양식이 '살림'을 바탕으로 생명의 확대 양육을 통하여 자연의 풍요로움에 동참함으로써 지속성을 실현하는 것임에 비하여, 공업적 생산양식과 그 체계란 본질적으로 '죽임'을 바탕으로 유한한 자원과 에너지의 가공을 통해 낭비와 오염을 구조화함으로써

지속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양식인 것이다. 공업사회의 붕괴가 필연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듯이 농업과 공업은 그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 결코 하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공업적 농업생산이란 방식은 이미 그 자체에서부터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기형적인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공업화 사회로 표현되는 산업문명의 한계에 대한 생태적 대안으로서 농적 문명과 그 토대를 이루는 중심적인 생산양식으로써의 농업이란 철저히 생명의 원리에 바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농업 또는 생명농업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행위와 생산을 위한 기술 역시 공업적 생산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농업에서의 노동이란 기본적으로 자연의 생산력을 돕는 산과 로써의 행위와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양육자로서 행위 그리고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함께 먹여 살리는 생명 제공자로서의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일꾼으로서 농부의 노동행위는 바로 자식을 기르고 보살피는 어머니의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섬세한 손길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농사일이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레나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땅과 함께 그리고 온 우주 삼라만상과 함께 짓는 일이다. 농촌이 우리의 뿌리이며 그 문화가 우리 존재, 그 정체성의 근거인 것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한 알의 씨앗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는 것은 그 한 톨의 생명이 영글기까지 온 우주의 협동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농업에서의 노동이란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우주와 협동하는 일이며,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신비를 찬양하는 일이며, 신명으로 춤추는 일이며 그리하여 자신을 가꾸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인 것이다.

농사란 무릇 하늘과 땅과 함께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

로 생명의 농법, 생태적 농법이란 당연히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명의 농사법은 하늘과 땅은 물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고 섬김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란 바로 이처럼 자연과 우주의 대생명력과 하나 되는 생명농업의 이치 속에서만 지속성과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란 노동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간인 농부가 자연인 땅과 관계하여 작물을 키우고 가꾸는 방법을 농법 또는 농사기술이라 할 때 생명농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또한 당연히 생태적 기술, 생명의 기술임은 자명하다.

생태기술이란 자연의 원리를 배우고 이에 따르는 기술이다. 그래서 생태 순환시스템을 따르는 생태기술은 지금처럼 파괴된 체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술이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협력을 이루어 내는 기술이자 관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기술이다. 따라서 생태기술은 인간의 편리와 욕망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태적 안정성과 균형을 위한 기술이며, 생산자체를 목적으로 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력이 충실한 양육을 위한 기술 곧 관계와 교섭의 기술, 돌봄과 보살핌 그 사랑의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땅의 생명력을 박탈하고 농업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산물을 오염시켜 자신과 세상을 병들게 하는 생산성 중심의 반생태적 기술, 그 농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농업과 그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루돌프 슈마허의 중간기술이나 루이스 면포드가 말하는 마음과 손의 충분한 활용에 바탕한 공예기술 등이 생태기술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생태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문제와 함께 그 기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기계 문제 또한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생태농업에서 요구되는 기계란 생산성의

효율 중심이 아니라 생태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토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계의 사용이나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 오염을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중심의 거대 기계 등은 전면 재조정해야한다. 특히 생명의 땅에 대한 기계 사용의 문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명농업에 있어서의 기계는 생태적 기술을 실현하는 도구로써, 노동에 대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로써의 기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농업, 생명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한계

농업과 공업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공업적 농업, 반 생태적 관행농업의 근본적인 한계는 생명의 안정성과 생산의 지속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명의 안정성의 한계란 관행농업을 통해서도 결코 생명의 밥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밥의 위기이다.

밥의 위기는 생명의 안정성의 위기, 곧 생명 그 자체의 위기이다. 농업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함은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 밥을 생산하는 일이며 그것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이라 하고 밥이 하늘이라 함은 이런 까닭이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법인데 농사라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써 제왕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할 부분이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衣食之源, 而王政之所先也/세종).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 밥에 의해 우리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은 물질 우주를 사는 생명체들의 생존 법칙이다. 이른바 영양과 건강에 관한 자연법칙이 이것이다. 병든 밥, 생명이 없는 밥을 먹는다면 우리 또한 병들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명의 밥이란 생명력이 충실한 밥이다. 모든 생명체는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 속에서만 충실하고 왕성한 자기 생명력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명의 농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력이 충실한 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땅이 병들면, 물이 병들면, 대기가 병들면 생명 또한 병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생태적인 관행농업으로는 결코 살아있는 땅에서 생명력이 충실한 밥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농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 생명의 밥을 얻을 수 없는 농업이란 이미 농업일 수 없는 것이다.

지속성의 한계란 관행농업, 공업적 농업 생산으로써는 지속적인 생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공업적 산업문명이 그 자체로 지속성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생태순환체계를 거스르며 생산성의 효율화와 생산력의 극대화를 지상과제로 삼는 현대농업 또한 바로 그 때문에 지속될 수 없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공업적 농업의 기본특징은 상품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자연의 생태순환체계를 거스르며 한정된 석유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등의 농약과 석유 및 비닐 등의 석유부산물과 기계화에 의존하는 이러한 농업은 에너지와 자본의 고투입, 작물의 단작화, 농지와 시설의 규모화와 집약화라는 생산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는 살충제에 의한 해충의 면역, 견잡을 수 없는 해충의 창궐, 화학비료, 제초제, 비닐 등에 의한 토양생태계 파괴, 토양침식과 토양수축 및 염화와 침수, 기계화로 인한 대규모 이농과 생산비용의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공업화된 농업의 생산방식이 갖는 정체이고 그 내용이다. 토양생산력상실, 병충의 내성강화, 환경오염심화, 고투입 저효율이라는 악순환을 구조화하는 이러한 생산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3. 상생 순환의 생명 농업

생명농업에 대해 여러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땅을 살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자연과 조화되면서 생명의 양식을 마련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생(相生)’과 ‘순환(循環)’이 생명농업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순환되지 않고서는 자연과 조화될 수 없고 상생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농업을 순환의 농업, 상생의 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생순환의 농업, 곧 생명농업, 생태농업은 그 특징으로 안정적, 지속적 농업, 창조적 농업, 금지를 갖는 농업, 문화를 창달하는 농업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상생이란 모든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보고 서로 살리고 더불어 산다는 말이다. 그런 까닭에 생명농업의 기본은 먼저 땅을 살리고 자연의 생산력을 복원하는데 있다. 땅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생명의 밥을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의 어떤 생명체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땅이 모든 생명의 근거이고 바탕인 까닭이다. 이처럼 공업적 농업에 의해 생명력을 일방적으로 수탈 당하고 파괴당하여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그 살아있는 땅에서 생명력이 충실한 작물을 길러 밥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생명농업인 것이다.

순환이란 자연이 스스로를 유지하며 풍요를 실현하는 원리이다. 생명의 지속성이란 순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상생 순환의 원리에 의해 못 생명을 낳고 기르며 그 생명을 이어간다. 생명농업에서 순환이란 제 땅에서 나온 것을 다시 제 땅으로 되돌려주는 물질순환체계(가축분뇨, 윤작을 통한 녹색작물거름, 바이오 가스, 생물학적 시스템 등)의 구축뿐만 아니라, 사람과 땅(토지)의 연결 끈, 밥을 생산하는 농민과 그 밥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 가는 소비자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순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농의 순환체계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연대해야 생명의 밥상을 마련할 수 있고, 농촌이 살아야 도시 또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생산에 대한 도시의 인적 지원뿐 아니라 도시 쓰레기, 폐기물의 자

원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위기에서 살아남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농업, 유기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단순히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식이 아닌 현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행농업에서 생명농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농법일 뿐 아니라 환경위기, 생명 위기 속에서 상생 순환적인 생태농업을 통해서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고 도·농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의 척도에서 보면 식량위기나 환경의 파괴,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 등 인류와 자연을 서서히 파괴하는 죽음의 농법에서 상생순환의 생명의 농법을 통해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어떻게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생명농업은 단순한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유통차원을 포괄하는 유기 순환적인 생태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처럼 새로운 대안으로써 생명농업, 유기 순환적 생태농업이란 상품경제, 시장경제의 논리와 가치관을 거부 극복하고 경쟁과 소비에 바탕한 반자연적인 공업사회, 현대 산업문명에 대체되는 새로운 사회실현을 목표로 삼아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철저한 제휴를 통한 공생적 질서를 창출해 가는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생태적 인간과 농심(農心)의 회복

반생태적인 관행농업에서 생명의 농업으로 돌아와야 할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농업이 되지 않고서는 생산자 농민이, 자연과 함께 사는 생명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이 병들면 땅이 병들고 생명의 양식인 밥이 병들 수밖에 없게될 뿐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관행농업에 종사하는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이 생명의 일꾼으로

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질 못하고 오히려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돈벌이를 위한 농업, 혼자 편하고 잘살기 위해 땅과 생명을 죽이고 자연을 수탈하며 소비자를 병들게 하는 농업을 통해서서는 결코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음은 자명하다. 농민이 땅을 살리고 작물이라는 생명을 기르며 소비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제공할 때 비로소 생명의 일꾼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회복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작물과 사람과 세상 이 모두를 함께 살리기 위한 농업 곧 생명농업, 생태농업이란 결국 생산자 농민으로서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인간정신을 회복하는 일 곧 농심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농심의 회복이란 땅에서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농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 의지하여 먹고 입고 번식하며 살아가는 자명한 이치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땅의 자식임을 겸허하게 깨달으며 대지를 어머니로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풍요와 지속적인 생존이 더 이상 어머니 땅에 대한 일방적 지배와 착취와 거역으로써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존중하여 이에 따른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일이다.

결국 농심의 회복이 관건(關鍵)이다. 농심이 곧 땅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근본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심의 회복이야말로 생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생태적 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적 문명을 열어 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인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생태적 사회를 위해선 먼저 생태적 인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심의 회복이란 생태적 인간의 기본 조건

이며 그런 점에서 자연과 조화하면서 땅을 살리는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야말로 생태적 인간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상생순환의 농(農)의 시대로

21세기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기가 생태사회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산업문명의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농업적 생산양식에 의해 그 문명을 이루어 왔다. 곧 인류의 문명사, 그 흥망사는 땅의 생명력에 의해 좌우되어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농업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희망임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생명의 농업이 과연 가능한가. 실현가능성은 있는가하는 점이다. 관행농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선 아직도 회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생태농업, 생명농업이 생명위기, 환경생태위기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일 뿐 아니라 유일하고 실제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 자연의 허용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을 바탕으로 농업이 환경친화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처럼 그것은 이미 검증된 대안일 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생태농업의 성공적인 사례는 이제 개별 농가나 한 지역의 범위를 떠나 한 국가전체의 사례로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의 유기농업 사례이다. 21세기를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의 유기농업의 사례는 1989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쿠바의 국가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생존을 위한 자립적 대안으로 시도되었고 10여 년에 이르는 지금 그 결과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러한 쿠바의 국가적 실험은 석유에 의존해 온 공업화된 관행농업에 대한 농업적 대안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생태적 문명과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위한 모델이 되고 있다.

회귀란 과거로 돌아감이 아니라 바른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이고, 근본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벗어나 있었다. 이제 다시 그 처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명농업으로의 회귀란 그런 점에서 농업의 바른 자리의 회복일 뿐 아니라 바른 생명, 바른 세상에의 회귀를 위한 바탕이며 전제이다. 어디 생명농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농업, 상생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농업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럴 때 농심이 살고 땅이 살고 밥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의 생명이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이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